



2020년 5월 3일(제980호) 부활 제4주일(상소 주일, 생명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한 번씩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부제 서품을 받고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갔던 가이드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이스라엘 여행에서 필요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성지순례 중, 제가 잠시 제 동기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도 동료도 보이지 않자 저는 덜컥 겁이 났지요. 마침 근처에 안내원 한 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어보았고, 겨우 가이드와 동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아주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었지요. 만약 저에게 길을 알려준 그 안내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에 안내원의 도움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하느님 아버지께로 이끄시지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시며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그분을 직접 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흔적이며 남겨진 유산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목소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당신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영감에 따라 하느님 사랑의 역사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이 기록된 성경, 즉 거룩한 책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성전, 즉 거룩한 전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안내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알아보는 방법은 예수님의 목소리, 즉 성경과 성전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에는 구글 지도도, 휴대폰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과 성전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이 미사 안에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세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지금 성령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금 예수님께 은총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청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모든 사제와 수도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윤상원(시른) 신부
한빛(32시른) 상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사도 2,14-36-4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1베드 2,20-25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복 음
영 성 제 송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요한 10,1-10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상화이야기

성모지와 천사들



이 당시 피렌체에서 볼 수 있던 실제 여인과 아이들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보티첼로의 스승답게 아름다운 선과 우아한 분위기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의 다가올 수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성모님의 머리에는 투명한 소재의 옷감으로 보이는 두건 같은 것이 씌워져 있고, 구불거리며 흘러내리는 옷감이 성모님의 목선을 타고 어깨까지 떨어진다.

오른쪽에는 아기 예수님이 성모님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대고 당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받치고 있는 두 천사의 모습이 흥미롭다. 가장 앞쪽에 있는 천사는 마치 피렌체 길거리에서 방금 화가의 화실로 불려온 듯 장난꾸러기 개구쟁이의 미소를 띠고 있으며, 뒤편 천사(아이)의 모습은 빼꼼한 눈의 절반 정도만 그려져, 그림 전체에 생동감을 더한다.

프리 필리포 리피, 1460년~1465년 제작
패널 위 템페라화, 63x95cm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제단화였던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당시 피렌체인들은 더 이상 중세의 딱딱한 인물들이 아닌, 자신들처럼 고통과 슬픔을 아는 성모님의 모습, 그리고 익살스러운 천사들의 모습에서 큰 위안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부활 제4주일: 소성 성주영 신부

◆ 군중교구 '잇숨 상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밋추를 따르" - "예수님께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